맨입으로 염불하면 헛수고… 48대원 믿는 게 '본원'

오봉사 회주 효란 스님

진실로 믿고 일심염불하는 순수함이 정토신앙 근본

"강의하다 죽어도 좋다"… 90노구에도 매주 '열강'

본원 믿는 것이 '발보리심' 염불공덕 쌓아 '극락왕생'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에 한 노파가 있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평생을 보낸 억센 노파였다. 욕도 잘 하고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기고 하며 억척같이 살아 온 노파는 어느 날부터 한 평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살만치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좋은 일보다는 남에게 해될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구먼."

"시장에서 장사하며 한 평생 살았는데 좋게만 살 수 있는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이여. 나는 죽어서 지옥 갈 것이여. 근데 지옥에 가면 계속 지옥에만 있게 되나? 아님 부처님이라도 있어서 누가 구해 주는 법도 있는감?"

"낸들 알어? 그게 궁금하면 저 위 서원사 큰스님에게 여쭤봐야지. 그 절 큰 스님은 이녁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지 않을까 싶네."

노파는 벌떡 일어서서 가게 정리도 하지 않고 한 걸음에 서원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효란(曉鸞 · 90) 스님을 뵙고 다짜고짜 여쭈었다.

"스님,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신가요?"

"예?"

"아,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시냐고요.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암만해도 지옥 갈 텐데, 거기도 부처님이 계신지 어쩐지 궁금해서 그래요."

"계시고말고요. 지옥이든 어디든 중생이 있는 곳엔 부처님도 항상 계십니다. 근데 왜 지옥 갈 생각을 먼저 하시오?"

"아따, 시장통에서 평생 억세게 살아 온 나 같은 사람이 극락갈 수 있다면 지옥이 텅 비었게요?"

효란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살날이 많으니 다른 생각 마시고 염불을 하세요.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하시면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극락정토에 가실 수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시고 열심히 염불하세요."

노파는 한 마음으로 염불만 열심히 하면 지옥을 면한다는 효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춤을 추듯 좋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노파는 입만 열면 '나무아미타불'이었다. 노파는 오직 스님의 말씀을 믿고 염불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물론 손님들과 입씨름 할 시간도 없이 염불만 했고 남을 대하는 것이나 가족들을 살피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염불삼매에 들다시피 한 생활을 하다가 노파는 병이 들었다. 효란 스님이 병문안을 갔더니 노파는 평온한 얼굴로 "스님, 저는 지옥 안가요. 죽는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노파는 잠을 자는 듯 그지없이 편안한 얼굴로 이승 인연을 마감했다.

이 일화를 두고 효란 스님은 "그 보살이 유식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일심염불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별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그렇게 염불에 매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게 많으면 신심은 적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대로 믿는 그 마음이 염불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종교도 신앙할 수 없어요. 그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쉼 없이 정진하는 것이 도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장마전선이 남하 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효란 스님을 뵈러 갔다. 노파가 찾아 간 서원사가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오봉산 계곡에 위치한 오봉사로 가야 했다. 수유리 서원사에서는 효란 스님의 제자인 서진 스님이 국내외에서 찾아 온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자들에게 염불 신행을 지도하고 있다. 서진 스님은 효란 스님의 뒤를 이어 정토학을 연구하며 신행을 지도한다. 지난해에는 <불이정토론>을 펴냈다. 원효대사의 <양권무량수경종요>와 <아미타경소>를 번역한 뒤 엮은 책이다. 서원사는 생활불교잡지 <참불교>를 통해 신행을 안내하기도 한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 조선말엽까지 향화가 꺼지지 않았던 오봉사는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 일로를 걷다가 효란 스님이 1993년 중창을 발원하고 법당을 지으면서 염불도량으로 가꾸어져 왔다.

해가 비스듬히 비치는 오후, 오봉사 마당에 들어서자 끊임없이 염불소리가 들린다. '무량수전'이란 글자가 커다랗게 새겨진 현판을 달고 있는 법당에서 젊은 스님이 쉰 목소리로 염불삼매에 들어 있다. 저렇게 목이 쉬고 또 쉬기를 반복하는 동안 젊은 스님의 정신과 육신에는 공덕의 향이 그윽하게 베일 것이다. 황금색 글자를 담은 현판은 서쪽에서 비껴드는 햇빛에 눈이 부시고 목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는 귀를 가득 채웠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한 걸음에 효란 스님을 찾아간 노파의 간절함 만큼은 안 되겠지만, 절을 한 번 하고 마주 앉자마자 '한 마디'를 여쭈어 바쳤다.

"근본소원을 믿어야지요."

지체 없이 떨어지는 스님의 대답. 귀에 보청기를 하셨지만, '한 마디'는 즉시 '한 마디'로 답하셨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를 위해 친절을 베푸셨다.

"근본소원이란 <무량수경>에 나오는 48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원력 다시 말해, 법장보살의 48대 원력을 믿고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본원염불이라 합니다. 염불신앙은 오직 본원염불이어야 잡되지 않아요. 48대원을 뿌리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염불신앙이 자꾸 번잡해 지는 겁니다."

그냥 맨입으로 염불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말씀이다. 48대원을 믿고 알고 행(염불)하는 것이 진짜 염불수행이라는 것. 효란 스님은 일심으로 믿고 염불하면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극락왕생 한다는 순수한 마음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당부한다.

"원효 스님도 <아미타경소>에서 왕생의 정인(正因)은 발보리심이요 염불은 조인(助因)이라 했습니다. 본원(48대원)을 믿는 것이 발보리심이고 염불로 공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48대원을 바르게 철저하게 믿고 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회향되어 그 힘으로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효란 스님은 염불을 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8대원을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염불에 일념을 바치라는 것이다.

일구미타무분별(一句彌陀無分別)
불로지탄도서방(不勞指彈到西方)

"(본원을 믿고)분별하는 마음 없이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만 염불해도 손가락 튕기는 수고 없이도 서방정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육조 혜능대사의 말입니다. 염불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행(염불)함이 한결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원염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외길신앙입니다."

외길신앙, 효란 스님은 일본의 정토진종 사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의를 여러 번 했다. 물론 일본 스님과 불자들이 이 주장에 공감하며 더욱 신심을 낸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드렸던가?"

효란 스님이 내놓은 책은 <일광삼존불의 유래와 신앙>인데 표지가 노란 것이 한글로 된 책이고 사이즈가 크고 은색표지를 한 것은 일본어판이다.



효란 스님은 …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3세에 수덕사 만공 스님에게 출가했으나 도일(渡日)해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독립운동에 관여해 옥고를 치렀다. 동산 스님의 사제인 동원 스님을 은사로 재득도하여 정토교학 연구와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한 일 양국을 오가며 강의를 하고 국제진종학회 한국대표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서원사와 오봉사 회주. 저서로는 <염불신앙법요집> <정토삼부경역본> <진실한 불교는 본원에 있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정토삼부경강설> 등 다수.

효란 선지식을 찾아서

